원인 I :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

대개 임금이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면 음탕한 것만 즐기게 되어 그 짐독(鴆毒)[1]을 보지 못하고, 재물을 좋아하면 모아 거두는 데만 힘써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편안히 놀기를 좋아하면 절도가 없이 유흥에 빠져 정사(政事)를 폐하는 해를 보지 못하고, 군사 부리기를 좋아하면 끊임없이 무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에게 재앙이 됨을 보지 못합니다. 임금이 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대체로 이 네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런 병폐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무슨 병폐 때문에 항상 학문에 힘써 자신을 알차게 하지 못하십니까? 도

1 짐독(鴆毒): 짐새에 있는 맹렬한 독. 짐새는 중국에 살았다는 새로서 그 깃털로 술을 담근 것을 짐주(鴆酒)라 하는데, 그것을 상대를 해치는 독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훗날 심한 해독(害毒)을 이것으로 비유함

(道)[2]라는 것은 높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상생활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한 것을 걱정하여, 감히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도 학문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어서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벌써 전하께서 분발하여 성군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모두 그런 것을 보고서, 정심(正心)[3]과 성의(誠意)[4]를 지겹게 듣는 케케묵은 말이라 여기며, 어려운 일을 책임지우고 선한 일을 베풀라는 의견을 어리석은 유학자의 물정에 어두운 방책(方策)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경연(經筵)[5]의 자리에서도 담당 신하는 그저 문장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충성스런 말을 임금에게 아뢰는 책임을 때울 뿐이며, 전하께서도 반복하여 글자와 문장의 의미나 물으실 뿐 절실하게 실천해야 할 공부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단지 문장의 뜻만을 구하고 자신의 몸에 되돌려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과거시험을 보려는 선비가 명예와 녹봉(祿俸)[6]이나 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속된 선비는 이것으로 출세하여 이름이 드러나고 녹봉이 많아지는 일에 힘쓰니 참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

---

2 도(道): 원래는 길 또는 방법이나 진리 · 윤리 · 법칙 등으로 다양하게 쓰임. 여기서는 공부 또는 학문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음

3 정심(正心):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하나

4 성의(誠意):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으로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하나

5 경연(經筵): 임금 앞에서 신하가 유교의 경전이나 사서(史書) 등을 강론하던 일

6 녹봉(祿俸): 옛 관료들의 급료. 봉록이라고도 함

니다.

이제 전하의 소원은 자신을 요순(堯舜)[7]과 같이 만들고 백성을 요순의 백성과 같이 만드는 것이라면, 어찌 그 꽃만을 구하고 열매는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해설

이 부분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서 학문에 힘쓰지 않음을 주장하는 말이다.

선생은 일단 옛 임금들이 나라를 망치는 네 가지 유형을 들어 선조임금이 그것에 빠지지 않았다고 인정함으로써 선조가 좋은 임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임금이 학문에 진력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선생이 말하는 학문은 어떤 것인가? 『격몽요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이른바 학문이란 이상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아비가 되어서는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당연히 효도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당연히 충성하고, 부부가 되어서는 당연히 분별 있게 행동하고, 형제가 되어서는 당연히 우애하고, 젊은이가 되

7 요순(堯舜): 성인으로 추앙하는 중국 상고대의 요임금과 순임금

어서는 당연히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가 되어서는 당연히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두 일상생활에서 일에 따라 제각기 마땅하게 하는 것이지, 마음이 심오한 데로 달려가서 기이한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 지금 사람들이 학문이 일상생활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높고 멀리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 망령되이 생각한다."

이 말과 본문의 "도(道)라는 것은 높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상생활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한 것을 걱정하여 감히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라는 주장은 동일하다. 학문이란 일상생활에서 유교적 가치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실천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사례로서 경연(經筵) 자리에서 선조임금과 경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거시험을 통해 일신의 영달에만 매진하는 식견이나 행실이 변변치 못한 속유(俗儒)의 예를 들었다.

속유란 진유(眞儒)와 대척점에 있는 시류에 영합하는 선비이다. 선생은『동호문답』에서 진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른바 진유라는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면 한 시대에 도를 실천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물러나면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여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실천할 만한 도가 없고 물러나서는 전할 만한 가르침이 없다면, 비록 그를 진유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

선비에게 진유가 있다면, 임금에게는 성군(聖君)이 있다. 『격몽요결』의 「입지장」에서 선생은 공부의 목표를 성인(聖人)이 되는 것으로 뜻을 세우라고 주문하였다. 공부 여하에 따라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생은 선조가 성인이 되는 학문을 하라는 주문이다. 그래서 『성학집요』도 지어 올렸다. 문제는 당시 선조가 그런 학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행간에서 읽어 낼 수 있다.

여기서 "여러 신하들이 모두 그런 것을 보고서, 정심(正心)과 성의(誠意)를 지겹게 듣는 케케묵은 말이라 여기며, 어려운 일을 책임지우고 선한 일을 베풀라는 의견을 어리석은 유학자의 물정에 어두운 방책(方策)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성리학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공부의 방법으로 중요시 하는 『대학』의 가르침을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과연 성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오늘날 입장에서 되물어 봐야 할 것 같지만, 선생은 그렇게 믿은 것 같다. 그것을 주장한 앞선 성인들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시사되는 점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장을 해석하거나 그 의미만 파악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부의 목적이 실천을 위한 것인데 그것에만 안주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였다.

사실 이런 경향은 오늘날 인문학이 대부분 이러하다. 서양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인 영역에만 다루지 실천의

영역은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 심지어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경우도 그런 경향이 강하다. 동양철학의 원래의 의미를 되살려 지(知: 앎)와 행(行: 실천)이 일치되는 학문을 해야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道非高遠하나 而或意其至難하고 或憂其力弱하니라.
도 비 고 원　　이 혹 의 기 지 난　　혹 우 기 력 약

» 어휘 풀이

道: 길, 진리, 윤리, 방법/非: 아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부정하는 말. 동사를 부정하는 말은 不이 쓰임/高: 높다/遠: 멀다/而: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或: 혹자, 혹은/意: 생각하다/其: 대명사로서 '그'의 뜻/至: 매우, 지극히/難: 어렵다/憂: 근심하다, 걱정하다/力: 힘/弱: 약하다

» 문장 구조

1. 크게 보아 두 부분을 접속사 而가 역접으로 이어 주어 서로 반대 상황을 말하고 있다. 앞뒤 문장에서 주어를 다르게 썼으며 '道非高遠, 而或意其至難, 或憂其力弱'이라는 세 개의 작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而 앞의 문장의 주어는 道이고, 高遠은 부정어 非 뒤에 왔으므로 원래는 형용사이나 '높은 것'과 '먼 것'의 뜻을 지닌 복합명사이자 술어로서 일종의 보어가 되었다. 非 뒤에는 반드시 명사(또는 명사구나 절)나 대명사가 와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말하면 주어+동사+명사의 2형식이다. 그렇다면 동사는 어디에 갔는가? 대부분 한문에서 영어 be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문장 뒤에서 也를 많이 쓰지만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道非高遠'에서도 생략되고 非(~가 아니다)가 대신 그 역할을 맡았다.

3. 而 뒤의 문장 '或意其至難, 或憂其力弱'은 제각기 주어+타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의 형태로 영어 5형식의 문장과 유사하다. 주어는 或이며 동사는 각각 意와 憂이며 목적어는 其이며 목적격보어에 해당하는 것이 至難과 力弱이다.
4. 여기서 두 개의 목적어 其는 대명사로서 앞에 것은 道를, 뒤의 것은 或을 받는다. 둘 다 도道를 대신하다고 보아도 뜻은 통한다. 목적격 보어 至難과 力弱은 모두 형용사구이다.

» 해석

도(道)라는 것은 높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나 어떤 사람은 도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힘이 약한 것을 걱정한다.